

제 18 장

복음의 위대한 사실 :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쁘므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눅24 : 36~42).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 : 17~20).

복음의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가설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론도 아니고 근본적인 명제나 전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인 그 위대한 실재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동일한 예수님”임을 알아 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강조점은 그분이 바로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주님”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영광된 사실은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장사되셨던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이며, 육신을 입고 계셨던 그 때의 바로 그 모습을 부활한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지니고 계시다는 것도 역시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주 적은 인격적인 특성이나 외형상의 어떤 특이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각 사람들의 개별적인 특징들을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삶을 살아 가시는 동안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자신의 특성을 그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부활 이전이나 부활 이후나 아무런 차이도 없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무덤이 비었다”고 말한 후에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 갔던 일을 기록한 기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푸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 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요 20 : 4~8).

요한이 이해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세마포를 개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 : 11~18에 묘사된 사건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가에 서 있었을 때에 어

떤 사람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마리아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려 보고 그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 있는 동산의 문지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리아 앞에 서있던 그 사람은 그녀에게 “마리아야”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거의 변하지 않은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즉각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누가복음 24 : 30~31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기사를 살펴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사람이 저녁 시간에 그들과 함께 떡을 떼기 위하여 그들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누군지 알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축복 기도를 할 때에 그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즉각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식탁에서 축복 기도를 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 있던 제자들에게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기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희끄무레한 새벽녘의 그 해변가에 서있던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거두어서 그 배에서 다른 곳에 던져 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말대로 그렇게 하였을 때 그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때에 요한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시몬, 저 분이 누구인지 너는 아직도 모르겠어? 저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 !” 그분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이신 예수님이셨고,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그 제자가 알아 보기에 충분한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의 손에 남아 있는 못 자국과 그의 옆구리에 남아 있는 창에 찔린 흔적을 보고서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그마한 차이점이 육체로 계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

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믿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고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단 한명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도마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길에도 도마와 같은 회의가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도마는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도마의 항변이었습니다. 나도 역시 그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도 역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춧돌이 그 위에 세워진 건물에서 제거되어 버린다면, 그 건물은 그대로 땅에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퀴에서 그 중심이 제거되어 진다면, 그 바퀴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생기를 제거시켜 버린다면, 우리의 몸은 부패하여 흙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은으로 만든 줄이 풀리고 금으로 만든 그릇이 부서져 버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우리의 몸은 원래 만들어진 그대로 흙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전 12:6~7). 도마가 묘사한 인생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나 역시 이러한 식으로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법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도마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마여, 당신은 진리

를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시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다.” 도마는 “아니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합니다. 어둠이 드리워진 도마의 그 절망을 보십시오. 동료 사도들은 도마를 재촉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우리는 그를 직접 목격하였다. 우리는 그를 직접 만져 보았다.”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직접 그의 손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지 않고는 그것을 믿을 수 없고, 그의 옆구리에 나의 손가락을 넣어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다음날 일요일 밤에 사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도마에게 다시 되돌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도마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의 시선을 내리깔고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도마 자신이 제시한 그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그러한 육체적인 테스트는 얼마나 기이한 것이었습니까? 도마는 그 사실을 믿기에 앞서서 우선 그의 못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보고 그의 손을 주님의 옆구리 속에 넣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에 유물론적인 발언을 하고, 이제와서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무뚝뚝한 회의주의자인 도마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여 너의 손을 못자국에 넣어 보라, 너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단지 믿기만 하라.” 그러자 도마는 우리들 모든 회의주의자들의 모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인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은혜스러운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도마여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μακάριοι, “마카리오이”. 이 단어의 의미는 “행복하다”이다)(요 20 : 29). 이것은 우리

를 위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그분의 현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느 장소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간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시곤 하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동산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위로운 길을 걸어 가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때에 나타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다락방의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곳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 나타나시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십일이 지나서 더이상 주님을 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의 임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어떤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의 지상 명령을 마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첫번째 순교자였던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얼굴을 하늘로 들어서 그곳을 바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스테반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다소의 사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살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부터 찬란하게 빛나는 빛과 함께 예수님이 그 길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سم에 유배 당하였는데 그곳에서 그는 기아와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곳에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 세대를 걸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순종하는 봉사 안에서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의 헌신하는 노력이 아무리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봉사를 하고 섬기는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중앙 아프리카의 중심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David Livingstone)의 엄청난 거대한 동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은 잠베지 강(Zambezi River)쪽을 바라보고 있었읍니다. 그 강은 1마일 정도 되는 폭을 가지고 있었고, 400피트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폭포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것이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잠베지 강과 빅토리아 폭포를 마주 보면서 그곳에 서있는 리빙스톤의 거대한 동상을 바라볼 때에 나는 생각에 잠겼읍니다. 리빙스톤이 처음에 이곳에 와서 이 폭포와 강을 보았을 때 어떠한 기분이었을까 하고 상상해 보았읍니다. 리빙스톤은 잠베지 강을 따라 내려가서 동쪽의 해안에서부터 중앙 아프리카로 들어 가는 근원지를 찾으려 했읍니다. 그가 그곳을 여행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던 부족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저 강을 따라 내려가면 매우 사납고 광포한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더이상 가려고 한다면,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약간 묘한 습관이 있었읍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면 그는 기도를 하곤 하였읍니다. 기도를 한 후에 그는 성경을 들어서 그것을 펴고는 그 펼쳐진 페이지의 구절을 읽었는데, 그 구절을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생각하였읍니다. 그 강을 따라서 내려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되돌아

가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 놓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들고 그것을 펴서 그 페이지의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 : 20).

리빙스톤은 그의 흑인 수행원을 돌아보면서 “자, 갑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잠베지 강을 따라 내려갔고, 드디어 그는 그 장엄한 폭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는 순종의 섬김 안에서 여러분들의 편에서 순례의 여행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 그분은 지금도 무한한 시련과 슬픔의 고뇌의 시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달라스의 제일 침례 교회의 강단을 지켜오신 널리 알려진 위대한 목사님은 47년 동안에 걸쳐서 자신의 교우 가운데 훌륭한 한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J. C. 아놀드(J. C. Arnold)는 텍사스의 특수 공수 대원(Texas Rangers)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달라스의 경찰 대장도 역임하였습니다. 트루엣(Dr. Truett) 박사와 아놀드 대장은 존슨 카운티(Johnson County)로 가서 새 사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놀드 대장이 트루엣 박사님 앞으로 걸어 오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트루엣 박사님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심결에 공이치기가 없는 그의 엽총을 한쪽 팔에서 다른 팔로 옮겨 잡았습니다. 무심코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는 우연히 그 엽총의 방아쇠를 건드리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총이 발사되어서 그의 옆에 있던 가장 친한 친구를 심하게 부상케 하였고, 끝내 아놀드 대장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

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시는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었지만 그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크나큰 영혼의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이 되어서 처음으로 낮과 밤 동안에 깊게 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나의 설교자이다.”

트루엣 박사님은 이로 인하여 깨어나게 되었고, 즉시 다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트루엣 박사님은 세번째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동일한 확신의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러자 트루엣 박사님은 다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은 달라스 시를 뒤덮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거룩한 강단에 서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초청과 영접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집에 어떤 위대한 왕이나 어떤 수상이나 또는 아브라함이나 스가랴를 찾아 왔던 그러한 천사가 서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스릴이 넘치고 흥분을 자아내는 일입니까? 그러나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문 앞에 서서 지금 노크를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 문을 열면 그는 들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목사님, 주님은 목사

님의 마음의 문은 두드리실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문은 두드리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문도 역시 두드리십니다. 인생이란 그 각각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성경의 모든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페이지 위에서 그분의 얼굴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호소 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임재하심의 계시입니다.

놀라운 재능을 부여받은 독일의 학자인 에라스무스(Erasmus)는 이때까지 출판된 헬라이어 신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최초의 판을 발행하였는데, 이것은 후에 흠정역의 번역 원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이 헬라이어 신약성경인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의 서문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책의 페이지 위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여러분들 앞에 육신으로 서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욱더 온전하게 그 전체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룩하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 그분은 신자들의 무리 한 가운데 지금도 계십니다. 주님은 두 명이나 세 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으면 그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보 기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할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서 기쁨을 일으키는 것이 되며, 내가 알기로는 주님도 역시 그 기뻐하는 무리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 나라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이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

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

그분은 우리의 고독함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리들 자신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서 쓸쓸히 죽어 가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서 그는 주님이신 예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독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삶의 모든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는 날에도 예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날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는 그 작은 생명을 조성하셨고, 그 어린 아이에게 살아 있는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무덤가에 이르러서 이별을 고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사람들을 무덤의 손에 남겨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데스와 어둠과 파멸의 손 안에 남겨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고인들의 생명을 복سر러우신 주 예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들어간 그 최초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50여 년을 나는 목사로서 지내왔습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슬픔에 가득찬 가족들과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미 죽어 버린 몸을 수 없이 많이 땅 속에 묻어보았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들었던 바로 그 순간들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엘도라도를 떠날 때 나는 단지 5살이었습니다. 나의 부친은 어떤 일 때문에 멀리 떠나가셨습니다. 그가 돌아 오시자 나는 그에게 어디에 갔다가 오셨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끌어당기시면서, “아들아, 나는 나의 어머니를 지금 땅에 묻고 오는 길이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매우 경건하고 거

룩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친은 그의 어머니의 소천과 그 영결 예배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지금 너한테 내가 불러주지”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의 부친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 하였습니다. 그는 오래 전에 불리어졌던 악보의 찬송가들을 몇시간이고 계속해서 부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노래를 나에게 이렇게 불러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안전함이며,
 그분의 온화한 가슴 속에 있는 안전함이며,
 그곳에는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시원한 그늘이 드리우네,
 나의 영혼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게 되리.

우리가 사랑하는 죽은 자들을 무덤의 손아귀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또한 그 어두움의 손아귀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절망의 손아귀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에 맡긴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드디어 소천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날이 멸망과 어두움과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얼마나 크나큰 위로가 될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날이 되어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영광과 핵심은 살아 있을 때와 동일하게 죽어서도 마찬가지이며, 병들었을 때에도 건강할 때와 마찬가지이며, 가난할 때에도 부유할 때와 마찬가지이며, 늙어서도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지금도 걸으시며, 우리에게 지금도 축복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